

2024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갈라디아서  
메시지 8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

성경 말씀: 갈 3:27-28, 마 28:18-19

I.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 갈 3:27.

- A. 침례에는 네 방면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음(마 28:19), 이름 안으로 (마 28:19) 침례를 받음, 한 몸 안으로(고전 12:13) 침례를 받음, 그리스도 안으로(갈 3:27) 침례를 받음이다.
- B.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의 옛 생명을 종결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받아되게 하여, 그들을 옛 상태에서 나와 새 상태 안으로 이끈다 — 롬 8:2, 10.
- C. 마태복음 28 장 19 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한다.
  1.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 마 28:18.
    - a. 주님은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셨다.
    - b. 주님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다.
  2.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
  3. ‘안으로’는 로마서 6 장 3 절, 갈라디아서 3 장 27 절에서와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4.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은 단수이다.
    - a. 이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 b.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 고후 13:14.
  5. 마태복음은 셋(아버지, 아들, 영) 모두에게 한 이름을 부여함으로 신성한 삼일성의 실재를 열어 보여 준다 — 마 28:19.
    - a. 마태복음 1 장에서 성령과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 마 1:18, 23.
    - b. 3 장에서 아들은 열린 하늘 아래 침례의 물 속에서 계셨고, 그 영은 비둘기같이 아들 위에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광경이 제시된다 — 마 3:16-17.
    - c. 12 장에서 아들은 사람의 신분으로 그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가져오셨다 — 마 12:28.
    - d. 16 장에서 아버지는 왕국의 생명 맥박인 교회를 건축하시기 위해 아들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다 — 마 16:16-19.
    - e. 17 장에서 아들은 변형되었고(2 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입증되셨는데(5 절), 이로써 왕국의 출현의 축소판을 보여 주셨다(28 절).
    - f. 결국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거쳐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부활의 분위기와 실재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어,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인격, 실재 안으로 이방인들을 침례주어 그들을 왕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 마 28:19.
    - g.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믿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이다 — 마 28:19-20.
  6. 침례에는 두 방면, 즉 보이는 방면과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다.

- a. 보이는 방면은 물로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 행 2:38, 41, 10:44-48.
  - b.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가 없다면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는 헛된 것이고, 물로 하는 보이는 침례가 없다면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침례는 추상적이며 비 실제적이다. 두 방면이 모두 필요하다.
- D.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 갈 3:27.
-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 롬 8:10, 14, 갈 3:26, 4:7.
  - 2.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길이다 — 갈 3:27.
  - 3.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으므로 이제 주님과 유기적인 연결을 누리는데, 이 유기적인 연결이 우리의 온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 롬 12:2.
  - 4. 갈라디아서 3장의 끝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관한 말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갈 3:27.
  - 5. 바울이 침례에 관한 말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이 장에서 다룬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 II.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 갈 3:27.

- A.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 B.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 C.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것, 곧 그리스도를 겹옷으로 입는 것이다.
- D. 한 면에서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며, 다른 방면에서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 1.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이다 — 고전 15:45 하.
  -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길 때 우리의 옷이신 그리스도를 입는다.
  - 3. 이것은 침례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잠겼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음을 의미한다.
- E.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으며, 주님을 우리의 옷으로, 덮개로 입고 있음을 강하게 증언할 수 있다 — 갈 3:27.

## III.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갈 3:28.

- A. ‘하나’라는 말은 지극히 큰 의미가 있다.
- B. 침례 받은 이들인 우리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 갈 3:28.
- C. 침례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말할 확신이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이들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갈 3:27, 고후 13:14.
- D. 모든 인종과 국적과 사회 신분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 갈 3:28.